

한국여성의전화 25년의 여성인권이야기 출판을 축하하며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한국여성의전화 창립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창립 초기 마포 어느 곳으로 기억되는 여성의전화 사무실을 드나들던 때가 오래 전의 일 같지 않은데 어느새 사반세기의 역사를 자부하는 성년기를 맞이하여 그동안 씨름하며 축적한 여성인권이야기를 한 묶음으로 한 책을 펴내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크게 환영합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 진보적인 여성지식인들에 의해 변혁적 이념에 입각한 여성운동이 전개·발전되는 과정에서 1983년 어느 여성집단보다도 먼저 조직체로 출범시킨 것이 한국 여성의 전화였습니다. 여성의 천부적인 인권을 짓밟는 성폭력과 가정폭력 추방을 표방하며 창립된 한국여성의전화는 지난 25년 동안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끈질기게 여성이 겪고 있는 고통을 어루만지며 여성에게 가해지고 있는 폭력을 사회문제로 부각시켜 범죄로 인식하게 하면서 3대여성인권법인 '성폭력특별법', '가정폭력방지법', '성매매방지법'을 제정하는데 건인차 역할을 하였다고 여성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성폭력과 가정폭력은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근절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에도 앞장섰던 일을 높이 평가합니다.

한국여성의전화가 담지하고 있는 잠재력은 여성의 인권보호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1987년 진보적인 여성 진영의 21개 단체가 민족, 민주, 민중을 기치로 여성운동의 연합전선을 형성하는 일에도 함께하여 오늘의 우리 사회가 누리고 있는 민주화와 성주류화를 일궈내는 일에도 큰 힘이 된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어느 시가보다 힘찬 변혁의 바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운동, 여성운동을 하는 우리들이 새롭게 자세를 가다듬어 결단을 해야 하는 처지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런 때에 그동안 여성의전화와 함께 해온 30인의 필자가 엮어낸 주옥같은 여성인권이야기는 또 하나의 사반세기의 여성인권운동을 이끌어어나가는데 용기와 열정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많은 독자들이 읽어줄 것을 기대합니다.

한국여성의전화 창립 25주년을 기념하며 햇빛을 보게 된 '여성인권이야기'는 여성의전화가 1999년에 펴낸 '한국여성인권사'에 이어진 기록물로서 우리나라 여성운동사의 내용을 알차게 하는데 한 몫을 담당하리라 믿으며 다시 한 번 창립 25주년과 출판을 축하합니다.

한국여성인권 25주년 여성인권이야기 출판을 축하하며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한국여성의 권리와 창립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창립초기 미토 어느 곳으로 기억되는 여성의 권리와 소수성을 드나들던 때인 오래된의 일 같은데 많은데 어느새 사회변화의 맥락을 지켜보는 힘과 지혜를 갖게하여 그동안 겪어온 여러 어려움을 이겨내고 한국여성인권이야기를 한국여성으로 한 책을 펴내어 권리를 지각스럽게 생각하게 크게 하는 것입니다.

1980년대에 들어와 진보적인 여성지향인들에 의해 대한항공 이념에 입각한 여성 운동이 전개되면서 1983년 어느 여성계간담회를 통해 조직적으로 출범시킨 것이 한국여성의 권리였습니다. 여성의 최후적인 인권을 갖는다는 성폭력금지법과 폭력주장을 통상화한 창립된 한국여성의 권리는 지난 25년동안 성차별은 다양함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겪고 있는 고통을 이루어나가며 여성에게 지혜를 주고 있는 폭력을 사회적으로 부수시켜 법적으로 인성화해 내었다 3대 여성인권 법인 '성폭력 처벌법', '가족폭력 방지법', '성매매 방지법'을 제정하는데 전이차 역할을 하였으며 여성인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성폭력 및 가정폭력은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근절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내년에 이르러 입장식(1997년) 등이 제정되었습니다.

한국여성의 권리를 담지하고 있는 장서각의 여성의 인권보호에 관한 권고된 것이 아니라 1987년 진보적인 여성 진영의 여러단체가 민족, 민주, 민주를 가치로 여성운동의 연합체로서 형성되는 일에도 함께하여 오늘날 우리사회가 누리고 있는 민주화된 성폭력화를 일컫는 일에도 크게 기여한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사회는 어느시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운동, 여성운동은 어느 때보다 우리들이 새로운 가치를 깨닫고 실천을 해야 하는 처지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때에 그동안 여성의 권리와 함께 하고 있는 30년의 필자도 역시 주류였던 여성인권이야기를 또 하나의 시대변화의 의 여성인권운동을 이끄러나가는 데에 용기와 열정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많은 사람들이 위대함으로 기대합니다.

한국여성의 권리의 창립 25주년을 기념하여 '햇볕을 받기' '여성인권 이야기'는 IPPPI에 의해 한국여성인권센터에 이바지 기록물로서 유산으로 여성운동의 내용을 함께 나누어 한국사관 담당자를 받으며 다시 창립 25주년을 축하합니다.

여성의
권리

안녕하세요? 한국여성의전화연합입니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에서 25주년을 맞이하여 여성의전화 25년의 여성인권 이야기(여자, 길을 내다-가칭)를 출판하려고 합니다.

이에 선생님께 헌사를 부탁드립니다.

헌사는 여성의전화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여성의전화 활동의 25주년을 기념해서 내는 조직운동이야기에 대해 축하하거나 격려하는 글을 써주시면 됩니다. '25주년을 축하한다, 여성운동을 이렇게 이끌어온 것이 자랑스럽다' 등의 내용이 들어가는 글이면 좋을 듯 합니다.

아래와 같은 25주년이야기의 전체 흐름을 참고로 하셔서 편안히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량 : 원고지 3-4매(A4 1쪽) 정도

보내실 곳 : 

기한 : 2008년 11월 3일(월)

문의 : 허난영 담당활동가()

[25주년이야기 구성]

1 부 : 변신은 계속된다(회원들의 참여와 성장) --- 9개

- 할머니, 엄마, 그리고 나를 만나다 / 황경숙
- 한판 연극 같은 내 인생 / 은희주
- 살아남은 자의 이야기 / 김계환
- '아줌마', 날개 달다 / 이두옥
- 변신은 계속된다 / 강혜련
- 여성운동에 미치다 / 신재남
- 나도 괜찮은 여자 / 최정희
- 아줌마들에게 희망을 / 이숙애
- 절망의 터널을 지나 / 김경희

2부 : 가보지 않은 길에 길을 내다(여성인권운동 이야기) -----19개

- 강강술래 : 성매매 피해여성 지지 이야기 / 배임숙일
- 어렵다 어려워 : 쉼터 이야기 / 염미봉
- 여성, 성에 빠지다 : 성교육 이야기 / 강은숙
- “위험할 때 세 번! : 성폭력추방운동 이야기 / 신혜수
- 여자와 북어 : 아내폭력추방운동 이야기 / 정춘숙
- 다 같이 돌자 동네 한바퀴 : 서울 지역운동 이야기 / 박신연숙
- ‘촌년’들, ‘썸’동네에서 싸우다 : 농촌 지역운동 이야기 / 이태옥
- 가보지 않은 길을 가다: 중소도시 지역운동 이야기 / 최유란
- 여성인권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 쉬운 이혼은 없다 : 당사자운동 / 김홍미리
 - 당신은 우리의 자매입니다 : 결혼이주여성인권운동 / 김은경
 - 국경과 경계를 넘어 연대하다 : 국제연대활동 / 김은경
 - ‘폭력방송’ 잡아라 : 미디어운동 / 지향
 - 당당한 주체로 서기 위하여 : 여성의 경제권 확보운동 / 박명숙, 고미경
- 사회를 바꾼 사건, 이렇게 대처했다
 -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 주부강간미수사건 / 유리화영
 - 여성에게 ‘정당방위’란 없다, 아직은 : 아내강간사건 / 유리화영
 - “우리에게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 폭력생존자의 존속살해사건 / 유리화영
 - 항거하지 않으면 ‘화간’이다? : 정신지체 장애여성 성폭력사건 / 김복자
 - 가해자 이름으로 사건을 명명하다 : 아내폭력사건 / 배임숙일
 - 가해자 명예를 훼손했다고? : 대구성폭력억고소사건 / 조윤숙

3부 : 여성주의 조직을 만들다(여성의전화 조직이야기) -----2개

- 이 땅에 여성운동 깃발을 꽂다 : 여성의전화 1983-1993 / 한우섭
- 전국으로 퍼져나간 여성인권운동 : 여성의전화 1994-2007 / 박인혜

회고와 전망 : 25년 이야기를 마치며 / 민경자